

《左傳》에 보이는 天人 관계에 대한 고찰

— ‘災’ 예언을 중심으로

이시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좌전》 속 ‘災’의 개념
- III. ‘災’ 예언으로 본 당시 天人관계에 대한 시각
 - 1. 天命과 人事의 관계
 - 2. 以德配天 개념의 계승
 - 3. 天人相分 개념의 형성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홍수나 지진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경험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느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적 외소함은 종종 하늘 저편에 존재하는 모종의 운명론으로 귀결되곤 했다.

‘災殃’ 또는 ‘災難’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인류적 노력의 원시적 흔적을 우리는 《左傳》이라고 하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左傳》의 成書 시기와 관련해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시기는 대체로 孔子 사후로부터 약 100년 전(기원전 379년 이전)인 春秋時代 말년부터 戰國時代 초기 사이로 보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바로 《詩經》과 《尚書》 및 戰國時代 중기 이후에 등장한 諸子百家의 사이에 위치한다. 또한 이 시기는 바로 고대 중국의 宗法 제도와 사회경제 등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여러 사상들이 분기하던 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대사상사를 연

*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구함에 있어서도 이 시기는 교량적인 위치에 놓여 있게 되고, 東周時代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左傳》에 드러난 사상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류는 예로부터吉한 것을 추구하고凶한 것을 피하고 싶은 본능과 더불어未知에 대한 호기심으로 ‘災’와 관련한 예언과 해석을 내놓았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左傳》중에 ‘災’와 관련한 예언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당시 사람들이天人關係에 대해 가졌던 시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左傳》속 ‘災’의 개념

우선 ‘災’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災異’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흔히 ‘災’와 ‘異’라는 글자를 합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사실 漢代 이전까지 ‘災異’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漢代의 유학자들에 이르러서야 ‘災異’가 꾸짖고 훈계한다는 의미로 자연재해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左傳》에 ‘災’라는 글자가 언급되어 있다. 〈莊公29年〉에 보면 “무릇 사물은 재앙이 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 것이다.”¹⁾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재앙을 기록하는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다.

‘災’의 뜻과 관련해서는 〈宣公15年〉에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하늘은 때를 어기면 재해를 내리고, 땅은 괴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위정자가) 덕을 어기면 난리를 일으키고, 난리는 곧 妖災를 생기게 합니다.”²⁾ 또 〈宣公16年〉에는 “무릇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낸 불은 火, 하늘이 내린 불은 災라고 한다.”³⁾고 했다. 사실 ‘火災’라고 말할 때는 ‘天火’와 ‘人火’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지만 《左傳》에 언급된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재해는 ‘災’라고 부르고 있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은 ‘災’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火災·水災·旱災·蟲災·日蝕·月蝕 등의 현상은 당시의 관념 속에서 인간

1) “凡物，不爲災，不書.”，左丘明，《左傳》，《十三經注疏》，台北，商務印書館，1997年，阮刻本，178쪽. 《左傳》원문의 해석은 주로 신동준이 옮긴 《春秋左傳》을 참고했다. 한길사, 2006년.

2) “天反時爲災，地反物爲妖，民反德爲亂，亂則妖災生.”，《左傳》，같은 책，408쪽.

3) “凡火，人火曰火，天火曰災.”，《左傳》，같은 책，410쪽.

사의 재앙과 서로 상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災’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운석이 비 내리듯 떨어졌다.”⁴⁾라든가 “운석이 송나라의 하늘 위에서 5개가 떨어졌다.”라든가 “6마리의 익조가 뒤로 날아갔다.”⁵⁾처럼 그 자체가 해롭다고 여겨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할 때는 ‘災’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火星의 출현처럼 그 자체가 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만 당시의 관념체계 속에서 화재를 가져오는 징조라고 여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Ⅲ. ‘災’예언으로 본 당시 天人관계에 대한 시각

《左傳》에서 ‘災’라는 글자는 32번 등장한다. 그 가운데 예언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당시 天人관계에 대한 시각을 귀납시켜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여전히 절대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人事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災’라는 개념을 들어 인간들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후대에 꾸짖고 경계한다는 ‘災異’ 이론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周公 이래 ‘以德配天’ 사상의 계승과 발전이란 점에서 이는 후대의 ‘天人感應’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초보적인 ‘天人相分’ 사상이 생겨나서 사회구조와 종법제도 및 경제상황에 영향을 주어 天命 관념에 일부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나누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1. 天命과 人事의 관계

1) 前兆觀과 有神論의 계통적 확장

원시사회의 자연숭배는 하늘과 자연의 힘 및 자연의 사물에 대한 갖가지 숭배를 포괄하면서 인류에게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과 多神論 등을 형성시켰다. 인간은 이러한 사유의 한계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알 수 없

4) “隕石如雨”, 《左傳》, 같은 책, 장공7년.

5) “隕石於宋五”, “六鷁退飛”, 《左傳》, 같은 책, 희공16년.

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前兆觀念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災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이것은 인격을 지닌 신령이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前兆와 경고를 함께 준다는 것이다.

朱天順은 “잘못된 前兆觀과 有神論의 결합으로 前兆迷信이 형성되었다.”⁶⁾고 여겼다. 이러한 前兆迷信은 殷代와 周代에 들어서면 占卜으로 발전하여 유행한다. 초기 인류는 자연계에 대한 사유와 인식의 한계로 인해 그들이 마주한 곤혹스럽고 풀기 힘든 자연현상을 과학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가 없었다. 또한 자연현상에 대한 이러한 무지는 공포심과 경외심을 함께 불러일으키면서 鬼神이 인간에게 주는 일종의 계시이자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인간은 이러한 전조로 미래의 일을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詩經·小雅·十月之交》의 시에서는 이미 ‘日月告凶’⁷⁾과 같은 시구가 등장했다. 漢代의 許慎은 ‘示’라는 글자를 ‘하늘에 드리운 천상으로 길흉을 볼 수 있다’⁸⁾고 해석했다. 원시시대의 前兆迷信은 前兆의 출현 여부에 한정되어 있고 또 어떤 예고를 받은 내용면에서의 한계가 분명 존재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청해서 어떤 지시를 통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占卜’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처럼 관념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면서 占星術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언술로 확장되어 갔다. 《左傳》이 출현한 시기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시 이러한 사유방식을 기초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사상체계를 형성해 갔다.

2) 占星術 ‘分野’이론의 응용

占星術은 고대의 巫覡들이 前兆觀에 기초해서 만든 것으로 그 역사가 이미 오래 되었다. 가령 《易經·賁卦》의 “하늘의 모든 현상을 관찰하여 시세의 변화를 살핀다”⁹⁾라는 구절과 《易經·繫辭上》의 “하늘이 어떤 모양을 드리워 길흉을 보여주

6) “錯誤的前兆觀與有神論結合，構成前兆迷信”，朱天順，《中國古代宗教初探》，台北，谷風出版社，1986년，116쪽.

7) 《詩經》，《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년，407쪽.

8) “天垂象見吉凶”，段玉裁，《說文解字注》，台北，黎明文化，1994년，2쪽.

9) “觀乎天文，以察時變”，《易經》，《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년，62쪽.

니 성인이 그것을 象으로 삼았다”¹⁰⁾라는 구절은 모두 고대인들의 占星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러한 占星은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무당들은 그들이 관찰한 별자리의 운행 현상과 인간사의 일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복잡한 占星 체계로 변하게”¹¹⁾ 된 것이다.

《左傳》에 보이는 占星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국가의 흥망과 왕이나 신하의 재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별의 움직임과 상태로부터 정치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左傳》에 기술된 점성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일종의 별자리 분류(分野)의 관념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周禮·春官宗伯》을 보면 하늘의 별자리의 영역에 따라 땅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 원문의 내용과 鄭玄의注를 함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장씨가 하늘의 별을 관장하여 일월성신의 변동을 기록하고 천하가 바뀌는 것을 보고 그 길흉을 판단하고, 성토로써 구주의 땅을 분별하여 봉하고 봉한 지역은 다 나누어 맡은 별이 있어서 그 괴이함과 상서로움을 관찰하였고, 열두 때의 상서로써 천하의 괴이함과 상서로움을 관찰하였다.(保章氏掌天星, 以志星辰日月之變動, 以觀天下之遷, 辨其吉兇, 以星土辨九州之地, 所封, 封域皆有分星, 以觀妖祥, 以十有二歲之相, 觀天下之妖祥.)

鄭玄注：“이에 대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十二星次의 分野이다. 星紀의 분야는 吳越이고, 玄枵의 분야는 齊이고……大火의 분야는 宋이고, 析木의 분야는 燕이다. 이러한 분야의 괴이함과 상서로움은 주로 혜성의 기운으로 象을 삼았다.”(今其存可言者, 十二次之分也, 星紀吳越也, 玄枵齊也……大火宋也, 析木燕也. 此分野之妖祥, 主用客星慧孛之氣爲象.)¹²⁾

이른바 ‘分野’의 방법은 하늘을 1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당시 인간 세상의 12개 나라를 분별해서 서로 대응시킨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하늘의 어느 한 영역에서 혜성이나 일식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어느 국가가 장차 재앙에 빠질

10)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같은 책, 《易經》, 157쪽.

11) “巫覡把他們觀察到的一些星辰運行現象和世人事連繫起來, 變成一套複雜的占星體系”, 朱天順, 같은 책, 《中國古代宗教初探》, 148쪽.

12) 《周禮》, 《十三經注疏》, 台北, 藝文印書館, 1997년, 405-406쪽.

수 있다는 예시가 되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歲星’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分野’에 대한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하다. 당시 사람들은 木星(즉, 歲星)이 12년을 주기로 하늘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했으며, 黃道를 12 등분해서 ‘十二次’라 이름하고, 앞에서 서술한 分野의 이름에 따라 歲名을 정했다. 《左傳》에 보이는 각각의 歲星은 각 나라와 짝을 이루며 길흉을 점치며 예언의 원칙으로 삼았다. 《左傳·昭公7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름 4월 1일, 일식이 있었다. 진평공이 사문백에게 물었다. “누가 장차 일식의 재해를 당할 것 같소?” “노나라와 위나라가 당할 것인데 위나라의 재해가 크고 노나라의 재해는 작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진평공이 물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오?” “(해가) 위나라 分野에서 떠나 노나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노나라는 실제로 그 여파를 받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재해는 위나라 군주에게 있고, 노나라는 상경에게 있습니다.”(夏四月甲辰朔, 日有食之. 晉侯問於士文伯曰, “誰將當日食?” 對曰, “魯衛惡之, 衛大魯小.” 公曰, “何故?” 對曰, “去衛地, 如魯地. 於是有災, 魯實受之, 其大咎其衛君乎! 魯將上卿.”)¹³⁾

사문백은 일식의 방향이 위나라로 가서 노나라로 가기 때문에 일식의 피해가 위나라는 크고 노나라는 작다고 예언했다. 竹添光鴻은 《左氏會箋》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식의 재앙은 노나라는 그 여파를 받고 큰 피해는 위나라에 있다.”¹⁴⁾ 즉, 일식이 지나가는 자리로 재앙을 받는 상황을 예측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左傳》에서 占星術에 있어 ‘分野’의 방법을 응용한 전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3) 陰陽 관념의 응용

‘陰陽’이라는 두 글자의 기원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金文에 이미 ‘其陰其陽’¹⁵⁾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양계초의 고증에 의하면 商周 이전의 ‘陰陽’ 두 글자는 단지 태양이 비치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 또는 그것에서 파생된 뜻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현상의 하나만 가리킬 뿐 어떤 깊은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고

13) 같은 책, 《左傳》761쪽.

14) “日食之災, 魯受其餘耳, 大咎在衛.”, 竹添光鴻, 《左氏會箋》, 台北, 廣文書局, 1961년, 58쪽.

15) 周法高 主編, 《金文詁林》第十五冊, 香港, 中文大學, 1974년, 7797-7798쪽.

한다. 또 공자 또는 노자 이후에야 비로소 음양을 가지고 형상이 없는 상대적인 성질로써 사물의 운동과 변화의 원인을 설명했다고 한다.¹⁶⁾ 이것은 공자와 노자 이후에는 陰陽이 형이상학적인 범주로 옮겨갔다는 말이 된다. 《左傳·昭公21年》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가을 7월 1일, 일식이 있었다. 그러자 노소공이 재신에게 물었다. “이는 무슨 일리오? 화와 복 중 어느 쪽이 되겠소?” 재신이 대답했다.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에 일어나는 일식은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일월의 운행은 춘분과 추분에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게 됩니다. 또 하지와 동지에는 황도와 적도의 교차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달에 일식이 있으면 재앙이 됩니다. 이는 양기가 음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늘 수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秋七月壬午朔, 日有食之. 公問於梓慎曰, “是何物也? 禍福何爲? 對曰, “二至二分, 日有食之, 不爲災. 日月之行也. 分, 同道也. 至, 相過也. 其他月則爲災, 陽不克也, 故常爲水.)¹⁷⁾

여름 5월 1일, 일식이 있었다. 그러자 재신이 말했다. “장차 수재가 날 것이다.” 그러자 昭子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한재의 조짐이다. 태양이 춘분점을 지났지만 양기가 아직도 음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양기가 음기를 이기게 되면 그 기운이 반드시 크게 성할 것이다. 그러나 가뭄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기가 음기를 이겨내야 할 시점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는 바로 양기의 세력이 한 군데로 모여 쌓이고 있는 것이다.”(夏五月乙未朔, 日有食之. 梓慎曰, “將水.” 昭子曰, “旱也. 日過分而陽猶不克, 克必甚, 能无旱乎? 陽不克莫, 將積聚也.)¹⁸⁾

재신과 소자는 모두 음양 운행의 원칙을 가지고 예언을 하였는데, 단지 논법이 달랐을 뿐이다. 재신은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자는 양기가 누적되고 쌓였기 때문에 장차 한재가 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두 사람의 결론은 정반대가 되었다. 그러나 음양이 성하고 쇠하는 관념으로 재해를 추측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16) 梁啓超, 《陰陽五行說之來歷》, 《古史辨》第五冊, 台北, 藍燈文化, 1993년, 343-349쪽.

17) 같은 책, 《左傳》 869쪽.

18) 같은 책, 《左傳》 885쪽.

에는 일식이 동지나 하지 혹은 춘분이나 추분에 발생할 때는 음양의 균형과 차이가 너무 커서 재앙이 되지 않고, 다른 시기에 일식이 발생하면 재해가 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2. ‘以德配天’ 관념의 계승

殷 왕조를 이어 출현한 周 왕조는 자연스럽게 전대의 天命 관념을 이어 받았지만 그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관념적 변화가 있었다. 夏와 殷이라고 하는 전대 두 왕조의 패망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삼아 周公은 ‘以德配天’ 사상을 제기했다. 이것은 周가 殷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근거로 周나라 사람들이 德이 있어서 天命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天命에 기대서 정권을 합리화시켰지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보호한다(敬天保民)는 것은 확실히 西周的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나라 사람들은 은나라가 망한 것을 교훈 삼아 왕이 정치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백성의 희망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소위 ‘天命’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일방적이거나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왕이 덕을 베풀어야만 하늘이 감응한다는 쌍방향이자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사유체계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중요한 사유체계의 변화는 고대 종교의 사유방식에 윤리도덕의 내용을 가미한 것이기도 하다.

東周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西周的 사상이 이어졌다. 《左傳》에 보이는 적지 않은 내용 중에는 왕의 행위가 天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왕이란 사람은 반드시 ‘以德配天’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僖公5年〉의 내용을 살펴보자.

공자가 대답했다. “신이 들건대 귀신은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덕행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주서》에 이르기를 ‘하늘은 친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덕 있는 사람을 도운다’고 했고, 또 ‘서직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밝은 덕행만이 향기롭다’고 했으며, ‘사람들이 사용하는 祭物은 서로 같으나 신령은 오직 덕 있는 사람의 제물만 흠향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을진대 왕에게 덕이 없으면 백성은 화목할 수 없고 신령 또한 제물을 향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의 흠향은 오직 제사지내는 사람의 덕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宮子奇〕對曰, “臣聞之,

鬼神非人實親，惟德是依。故《周書》曰，‘皇天無親，惟德是輔。’又曰，‘黍稷非馨，明德惟馨。’又曰，‘民不易物，惟德絜物。’如是，則非德，民不和，神不享矣。神所馮依，將在德矣。”)19)

宮子奇는 《尚書》의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신령의 흠향은 오직 제사지내는 사람의 덕행에 달려 있을 뿐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 이것은 당시 ‘以德配天’의 사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左傳》에는 이 외에도 ‘災’와 관련된 대화가 있어 이러한 사상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

가을, 송나라에 홍수가 났다. 이에 노장공이 사자를 보내 조문했다. “하늘이 장맛비를 내려서 곡물을 해쳤으니 어찌 조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宋閔公)이 대답했다. “孤가 불경해서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주에게 염려를 끼쳐드려 오히려 감히 관심어린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문중이 대답했다. “송나라는 일어날 것이다.禹와 湯은 모든 것을 자기 죄로 돌려서 나라가 흥했고, 桀과 紂는 모든 것을 남의 죄로 돌려서 일거에 나라가 망했다. 제후국에 재앙이 있을 때 해당국 군주가 孤를 칭하니 예의가 있다. 말이 겸손하고 명칭이 예에 맞으니 그 나라는 거의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秋，宋大水。公使吊焉。曰，“天作淫雨，害于棗盛，若之何不吊？”對曰，“孤實不敬，天降之災，又以爲君憂，拜命之辱。”臧文仲曰，“宋其興乎。禹、湯罪已，其興也悖焉、桀、紂罪人，其亡也忽焉。且列國有凶稱孤，禮也。言懼而名禮，其庶乎。”)20)

9년 봄, 송나라에 화재가 났다. …… 晉侯가 士弱에게 물었다. “내가 듣건대 ‘송나라에 화재가 나니 이로써 하늘에 도가 있음을 안다’고 했소, 이는 무슨 까닭이오?” 士弱이 대답했다. “……당시 은나라 사람들이 화란이 일어나는 조짐을 조사한 결과 반드시 화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천도의 존재를 알았던 것입니다.” 公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필연적인가?” 士弱이 대답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도가 행해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데도 조짐이 없으면 미리 알 길이 없습니다.”(九年春，宋災。…… 晉侯問於士弱曰，“吾聞之，宋災，於是乎知有天道。何故？”對曰，“……商人閱其禍敗之變，必始於火，是以日知其有天道也。”公曰，“可必乎？”對曰，“在道。國亂無象，不可知也。”)21)

19) 같은 책, 《左傳》, 208쪽.

20) 같은 책, 《左傳·莊公11年》, 153쪽.

21) 같은 책, 《左傳·襄公9年》, 522쪽.

공이 물었다. “《詩經》에 이르기를 ‘저 태양이 일식을 일으키니 어느 곳이 해를 입을까?’라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士文伯)이 대답했다. “이는 선정을 베풀지 않고 현인을 등용하지 않으면 일월의 재해 속에서 스스로 재앙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사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정은 세 가지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현인을 잘 선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성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셋째는 때에 맞추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公曰, “《詩》所謂‘彼日而食, 於何不臧’者, 何也?” 對曰, “不善政之謂也. 國無政, 不用善, 則自取譴於日月之災, 故政不可不慎也. 務三而已, 一曰擇人, 二曰因民, 三曰從時.”)22)

첫 번째로 제시한 인용문에서 宋閔公은 수재가 발생한 원인을 자기의 죄로 보고 자기가 불경했기 때문에 하늘이 징벌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士弱은 晉侯의 질문에 대해 송나라에 화재가 난 것은 천문을 보고 그 조짐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화재가 난 원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道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국정이 문란하면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국운을 추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 번째 인용문에서 士文伯은 일식과 같은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선정을 펼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左傳》 속에는 상당 부분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부분을 벗어나 보다 인문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정신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나 재앙의 원인을 하늘이나 다른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통치자의 선정과 덕치로 귀결시키는 논리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以德配天’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승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天人相分’ 관념의 출현

《左傳》에는 ‘天人相分’의 관념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하늘이 운명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운명론에서 인간의 행위 자체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左傳·昭公18年》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22) 같은 책, 《左傳·昭公7年》, 761쪽.

정나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를 것을 청했으나 자산은 듣지 않았다. 자태숙이 물었다. “보물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화재가 나면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대는 왜 아끼십니까?” 자산이 말했다. “하늘의 도는 멀고 사람의 도는 가까우니 천도는 인도에 미치지 못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안다고 하는 것이오? 비조가 어찌 하늘의 도를 알 수 있겠소? 그는 말을 너무 많으니 간혹 그럴 듯한 말도 하지 않겠소?” 끝내 보물을 주지 않았지만 화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鄭人請用之, 子產不可. 子大叔曰, “寶, 以保民也. 若有火, 國幾亡. 可以救亡, 子何愛焉?” 子產曰, “天道遠, 人道邇, 非所及也, 何以知之? 灶焉知天道? 是亦多言矣, 豈不或信?” 遂不與, 亦不復火.)²³⁾

위에 인용된 일이 있기 전에 禘灶가 화재가 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자 정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게 되었고 子產에게 보물을 제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다음번에 일어날 화재를 면하고자 했지만 子產은 결국 허락하지 않았다. 子產은 소위 ‘天道’는 ‘人事’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人事’를 잘 다스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또 禘灶는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맞을 수도 있을 따름이라고 여기며 나라의 보물을 재물 삼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子產은 결코 ‘天道’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다는 신념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子產이 신비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성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당시에 이미 원시적인 미신을 벗어나서 이성적 사유를 시도하는 서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左傳·僖公21년》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여름 큰 가뭄이 들었다. 노희공이 여자 무당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자 장문중이 말했다. “이는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성곽을 수리하고 음식과 생필품을 아끼며 농사에 힘쓰고 서로 나누어 먹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무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그녀를 죽이고자 했다면 애초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가뭄을 몰고 왔다면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재해를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노희공이 그의 말을 따랐고 이 해에 비록 기근이 들었지만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夏, 大旱. 公欲焚巫尪. 臧文仲

23) 같은 책, 《左傳》, 841쪽.

曰, “非旱備也. 修城郭, 貶食省用, 務穡勸分, 此其務也. 巫尪何爲? 天欲殺之, 則如勿生, 若能爲旱, 焚之滋甚.” 公從之. 是歲也, 飢而不害.)²⁴⁾

고대의 무당은 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도 큰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도록 하는 임무도 맡았다. 그래서 가뭄이 발생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간혹 무당을 불에 태워 비를 갈구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희공은 노나라에 가뭄이 들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무당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불태우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문중은 가뭄과 무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가뭄이 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득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당시에 ‘天人相分’의 관념이 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하늘이 지닌 신비성을 부정하거나 하늘을 단순한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天道’에 비해 ‘人事’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災’를 하늘의 예시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하늘과 인간이 필연적인 관계로 엮어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左傳》에 기록된 일부 기술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天人關係’를 맹목적인 틀 속에서 벗어나 사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인문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라고 하겠다.

IV. 나오는 말

東晉의 范甯은 《穀梁傳》序文에서 《左傳》의 성격을 총평하면서 “문장이 아름답고 자료도 풍부하지만 단점은 귀신과 화복을 예언하는 巫術 방면에 편중되어 있다”²⁵⁾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미신적 관념을 형성하는 ‘災’와 그것과 관련된 예언을 《左傳》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前兆觀念과 有神論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

24) 같은 책, 《左傳》 241쪽.

25) “左氏黜而富, 其失也巫.”, 范甯 集解, 《十三經注疏·穀梁傳》, 7쪽.

었다. 둘째, 예언의 방식은 주로 占星 분야의 이론과 陰陽 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 속에는 하늘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天命思想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더욱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성적 사유와 인문정신이 발현된 것인데, 일부분은 周公의 '德으로써 天命에 따른다는 관념(以德配天)'을 계승하면서 왕의 행위가 天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해서 왕이 삼가고 신중한 태도로 정치를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한 부분은 '하늘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天人相分)'의 관념이 출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하늘의 작용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더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의 운에 맡기지 않고 인문에서 구한다(舍諸天運, 徵乎人文)'는 사상은 《左傳》이 출현한 시기에 이미 생겨났다. 이와 관련해 徐復觀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春秋時代 242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원시종교와 인문정신이 서로 교차하거나 교체되는 시기이다. 《左傳》은 단지 역사 속에서 서로 교차하고 교체되는 현상을 역사적으로 발생한 영향 관계에 따라 輕重을 분별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다." 이러한 언급은 《左傳》에 보이는 서술적 특징을 아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 다룬 天人 관계는 단지 '災'와 관련된 예언 부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以德配天' 사상의 연속성이나 '天人相分' 관념이 초보적이거나 드러난 내용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적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룬 '卜筮'·'占星'·'夢兆' 등과 같은 예언의 형식은 모두 향후 관련된 연구의 좋은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左傳》을 통해 분석한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그 출현 시기가 비슷한 《國語》등과 비교분석하여 귀납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보다 앞선 《詩經》과 《尚書》 및 이후 시기인 戰國時代 제자백가의 사상 및 漢代의 사상과도 종적인 연결이 가능한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東周 시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도 거시적인 연구결과는 향후 다른 논문을 통해서 다시 논증할 예정이다.

【參考文獻】

- 《詩經》，《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年，阮刻本。
《易經》，《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年，阮刻本。
《周禮》，《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年，阮刻本。
《左傳》，《十三經注疏》，台北，商務印書館，1997年，阮刻本。
《穀梁傳》，《十三經注疏》，台北，藝文印書館，1997年，阮刻本。
竹添光鴻，《左氏會箋》，台北，廣文書局，1961年。
段玉裁，《說文解字注》，台北，黎明文化，1994年。
朱天順，《中國古代宗教初探》，台北，谷風出版社，1986年。
梁啓超，〈陰陽五行說之來歷〉，《古史辨》第五冊，台北，藍燈文化，1993年。
신동준 옮김, 《春秋左傳》，한길사, 2006년.

【中文提要】

范甯謂：“左氏艷而富，其失也巫。”認爲《左傳》偏重談論巫術，富於迷信色彩，但筆者將一般認爲最易形成迷信的‘災’與其相關預言作一分析，即可發現：雖然當時還是受到前兆觀念與有神論的影響，又附以占星分野理論及陰陽五行配合干支的觀念來作預言，其內容的確存在著天的命定思想，但亦發現理性思惟與人文精神的抬頭，一部分繼續周公以德配天的觀念，強調人君行爲能影響天命，促使國君能更謹慎施政，另一部分則看出天人相分的觀念已出現，雖不全然否定天的作用，但更強調人事作爲。“舍諸天運，徵乎人文”的思想在《左傳》的時代已然崛起。徐復觀先生說：“春秋二百四十二年之間，正是原始宗教與人文精神互相交錯乃至交替的時代，左氏只是把此一段歷史中交錯交替的現象，隨其在歷史上所發生的影響，而判別輕重，如實的紀錄下來。”誠然如是。

本文中所討論的天人關係，由於僅就‘災’的相關預言爲材料，尤其在以德配天思想的連續與天人相分觀念的初步呈現兩部分資料較少，又在論述上不必顧及複雜的災異理論基礎，故本文對此二部分的說明呈現出來的分量較少。但其他有關卜筮、占星、甚至夢兆等等的預言，皆是研究的好材料，必然加以提供更多的證據或明哲仔細的分析。再者，若能將《左傳》中天人關係思想橫向配

合時代較接近的《國語》等書作一歸納性的研究，與之前的《詩經》、《尚書》等思想及其後的戰國諸子思想、漢代思想作一縱向連繫，可以較完整地了解東周天人關係思想的轉變與發展。

【主題語】

좌전, 재앙, 천명, 천인관계, 예언

左傳, 災, 天命思想, 以德配天, 天人相分

ZuoZhuan, disaster, nature, human, misfortune

투고일: 2015. 4. 15 / 심사일: 2015. 4. 20~5. 5 / 게재확정일: 2015. 5. 10